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제 72회

미리 보는 졸업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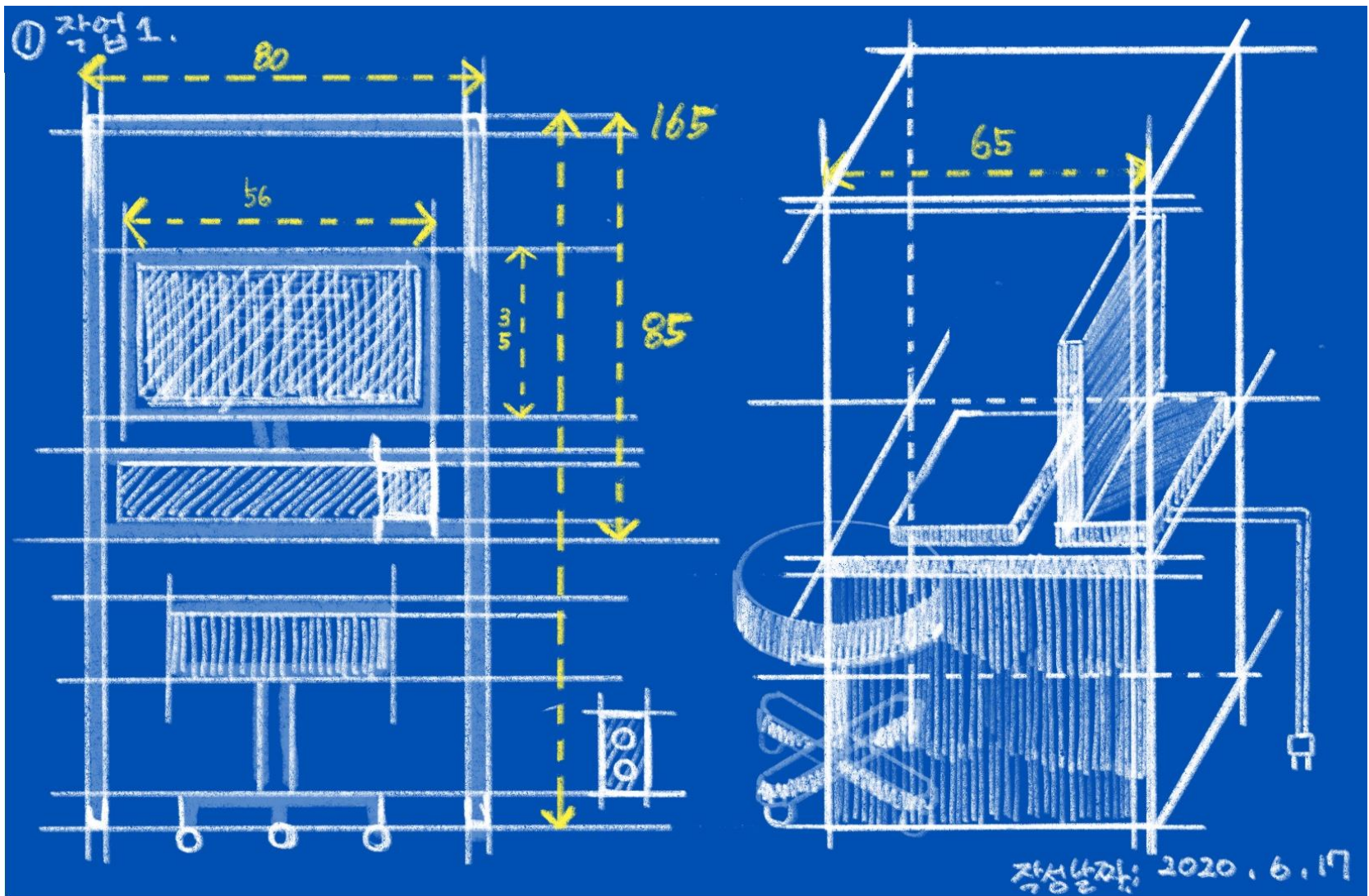


국은송 20151597

작품 (1)

한의학은 변하지 않지만, 서양의학 즉 현대의학은 매년 그 방법이 변합니다. 어느 제약 연구진의 인터뷰를 보면, 현대의학은 나쁜 바이러스든 질병을 개발함과 동시에 약을 개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제약회사가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요. 약의 실체에 대한 내용은 정말 자기 또는 가족이 겪지 않은 이상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크게 아플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으면서, 크게 아플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동네병원에서 처방 해주는 약으로 치료하는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과 실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체인 게임으로 주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게임의 첫 시작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작품명 : 미정〉
165×80×65cm, 설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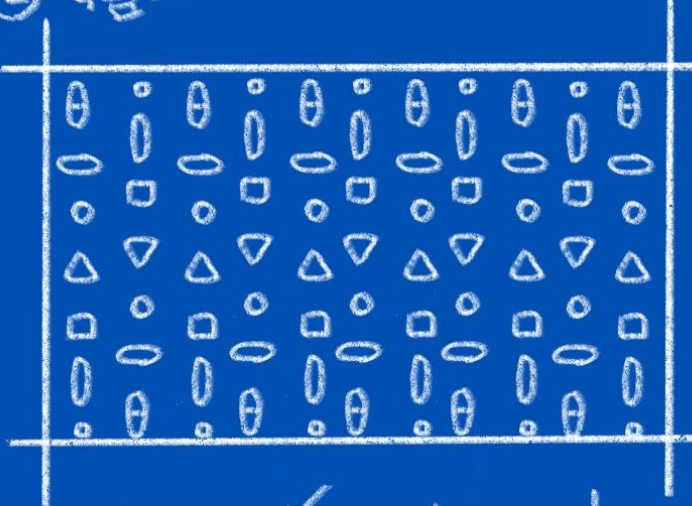
작품 (2)

하나의 감기약에도 수 십 가지의 제외회사에서 나오는 각 다른 제품명의 감기약이 있고, 그 안에는 0.01mg 마다 용량과 성분이 약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감기약에 수천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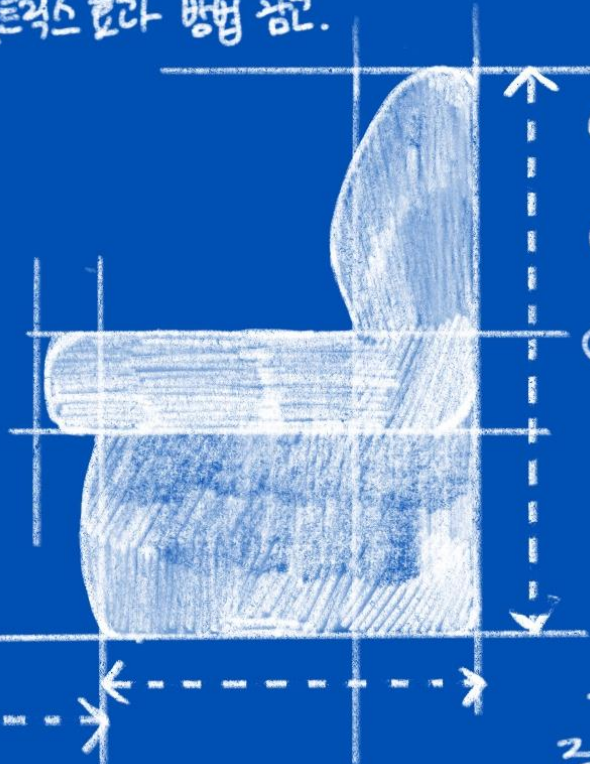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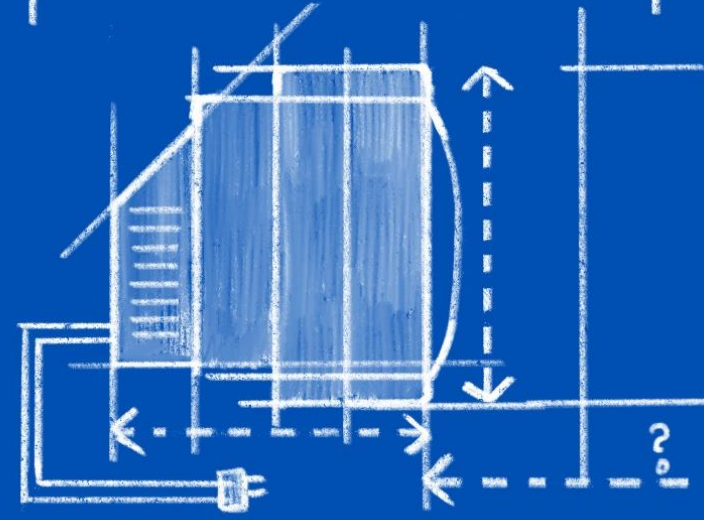
그 수천 가지의 알약들을 구분하기 위한 마크와 문구가 있는데,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알 방법이 없다. 수천 가지의 알약과 마크는 병원과 제약회사 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아닐까 싶다.

그들이 만든 세상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모습, 그리고 이미 그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

② 작품 2.



• 영상 + 설치. - 모티브 : 매트릭스
↓
After Effects
매트릭스 효과 방법 참고.
- TV + 소파, 비디오 플레이어
?



- ① 공간이 되는가
- ② TV 크기는가?
- ③ 소파는가?

작가
작성날짜: 06.21

<작품명 : 미정>
크기 미정, 미디어와 설치, 2020

권영훈 20146467

Disappear (가제)

사람은 간혹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매개로 무엇인가 기억한다. 그리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기억을 일으키는 매개체와 거기서 환기되는 기억도 가지각색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려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머리 속에서 지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워도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를 언젠가 다시 본다면 그것이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이번 작업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매개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럼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매개체가 없어지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매개체를 담은 사진에 하는 지우개 질로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매개체는 점점 시각 정보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트라우마의 극복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따라서 지우개 질은 극복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서만 보이는 건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매개체를 지워가는 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지우개 질이 필요할 지, 얼마나 많은 지우개 가루가 쌓일 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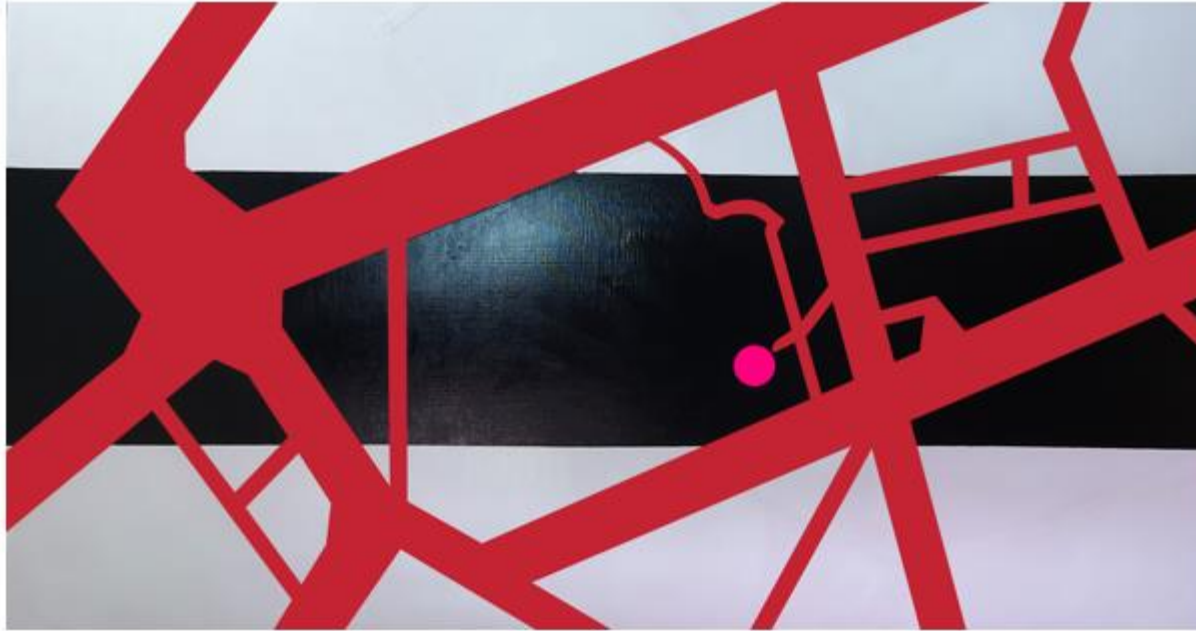
〈Disappear(가제)〉

42×59.4cm, 판넬 위에 사진 & 지우개 가루, 2020

금세아 20140416

지도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매개체이다. 우리는 화면 속 지도를 들여다보며 원하는 것을 찾고, 화면 밖에서 움직인다. 일상의 편리함을 위한 지도는 누군가에게는 기피를 위한 수단이다.

사회는 가해자에게 남겨진 피해자의 삶보다 짧은 형을 내린다. 정해진 형량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들은 기한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만 한다. 피해자는 온전해지기 위해 것들을 잊고 싶지만, 가해자가 곁에 없다는 현실과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의 차이를 인지하기 위해 그를 찾기 시작한다. 붉은 길로 채워진 지도는 편리함이 아닌 회피의 수단, 그리고 현실과 공포심이 만들어낸 일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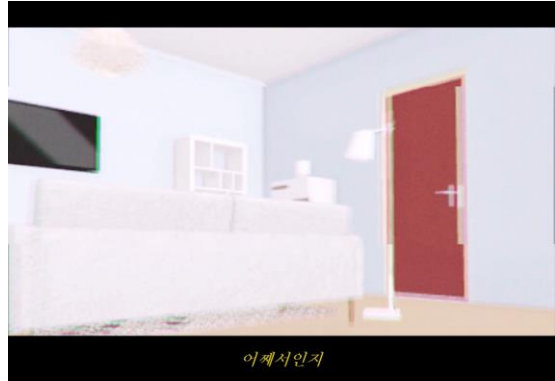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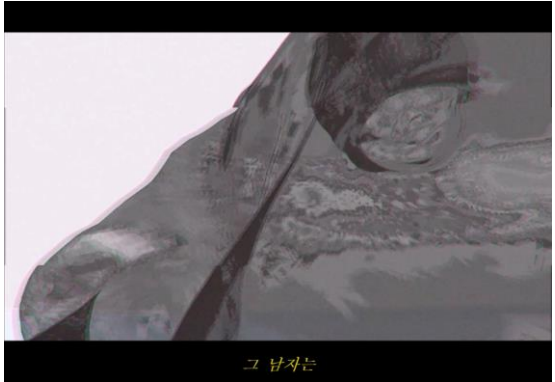


〈straw flower: 잊고 싶은 기억은 지독하게 제자리를 지킨다〉
260×65cm, Oil On Canvas, 2020

김도후 20176046

현대에 이르러 꿈은 더 이상 이성적인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신으로 치부가 된다. 하지만 감각된 이미지들을 구조로 번역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사물 표상은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꿈은 상징화 활동을 하는 과정이 아닌 이미 무의식적 사고에 완성된 상징화를 이용한다. 이러한 꿈은 잠재적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상징을 이용하고 상징은 묘사가 가능하므로 꿈의 요구 조건을 더욱 잘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검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특한 체험을 재 구성하여, 영상이라는 시각적 상징 언어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추상적 사고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형시키는 과정에 끌어들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집에 낯선 이가 산다(A stranger lives in my house)〉는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일어나는 가장 낯선 체험을 재현 한 작업으로, 함으로써 가상이면서 동시에 실재적인 무의식적 공간을 구성한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상징적 이미지들은 자아의 불연속성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욕망 혹은 갈등들을 간접적으로 비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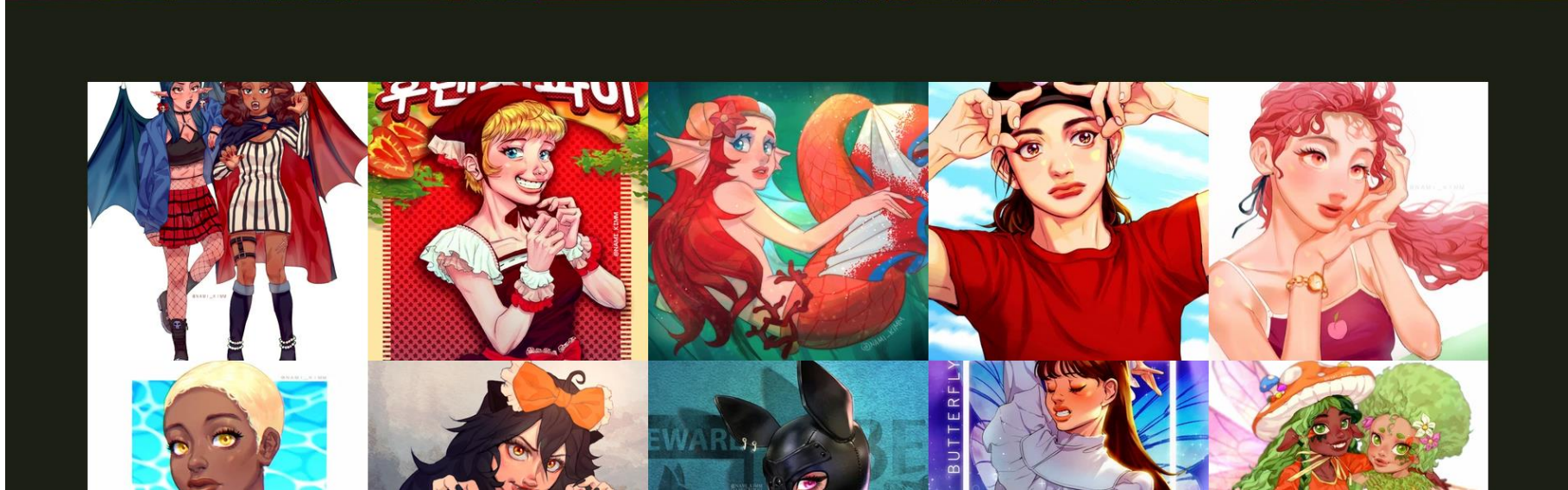


〈우리 집에 낯선 이가 산다〉 Sound, Single-channel Video, 1'24", 2020

김민아 20154082

- 상업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사이트 전시.
- 전시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람자가 직접 사이트를 볼 수 있다. (혹은 핸드폰으로 큐알 코드를 찍어서 확인 가능)
- 직접 제작한 포트폴리오 도록도 함께 전시할 예정.
- 약 100여 점의 상업 일러스트를 게시할 것이다.

* 사이트(모바일 접속 가능): <https://namikimmart.wixsite.com/artbynami>



〈포트폴리오 사이트〉 모니터 설치 전시 및 개인 도록 제작, 2020

김민영 20124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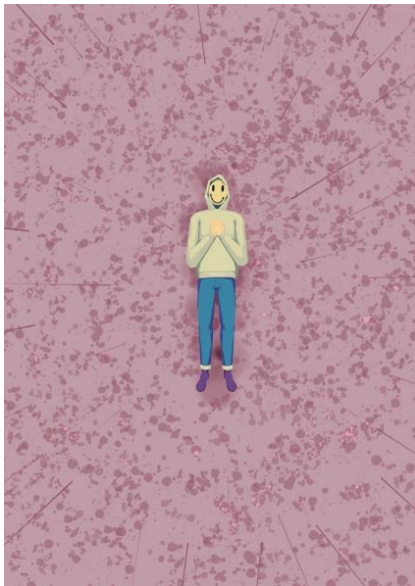
긴 휴학기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을 포기한 이후의 일상에서 겪은 일들, 느낀 감정, 내가 하려했던 행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물

격해지는 감정과 그 감정이 떠오르는 기억 속 이미지, 재창조 된 이미지를 후드와 가면을 쓴 모습과 함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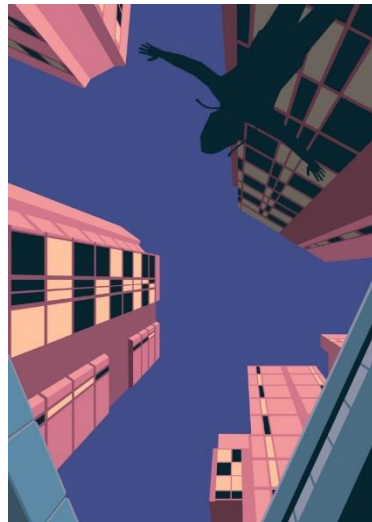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을 최대한 가벼운 색으로 표현했다. 내가 내 상태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에게 마저 그 이미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었다.

부담스럽지 않은 색과 일상의 모습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나도 그랬던 적 있는 거 같은데?’, ‘맞아 나도 그래’ 와 같은 공감을 불러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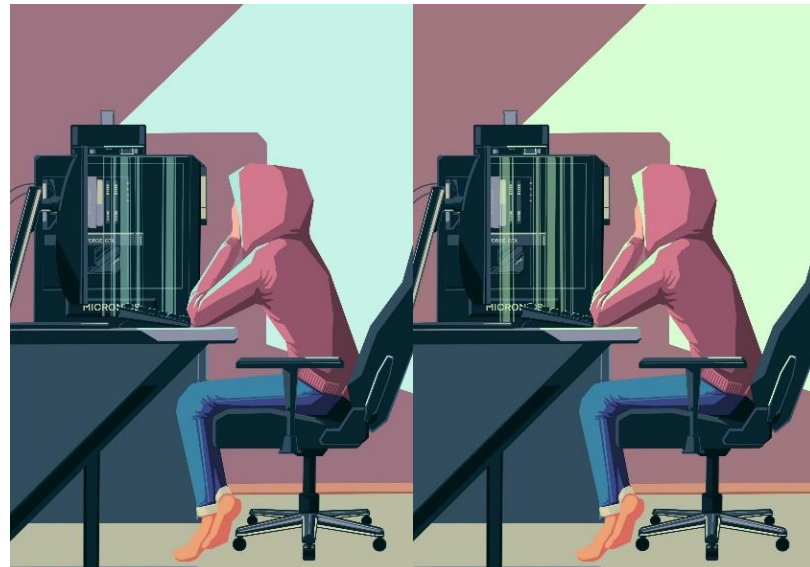
〈신경안정제〉
21×29.7cm(가변크기),
Digital, 영상,
2020



벽
감기같은 날



하늘을 본 날
매달린 것



〈뭘해야할지모르겠어〉
21×29.7cm(가변크기), Digital, 영상, 2020



〈떨어지는 것〉
29.7×21cm(가변크기), Digital, 2020



〈기록물(벽, 하늘을 본 날, 감기같은 날, 매달린 것)〉
21×29.7cm(가변크기), Digital, 2020



영상예시



김민지 20174075

해바라기->

조화? 造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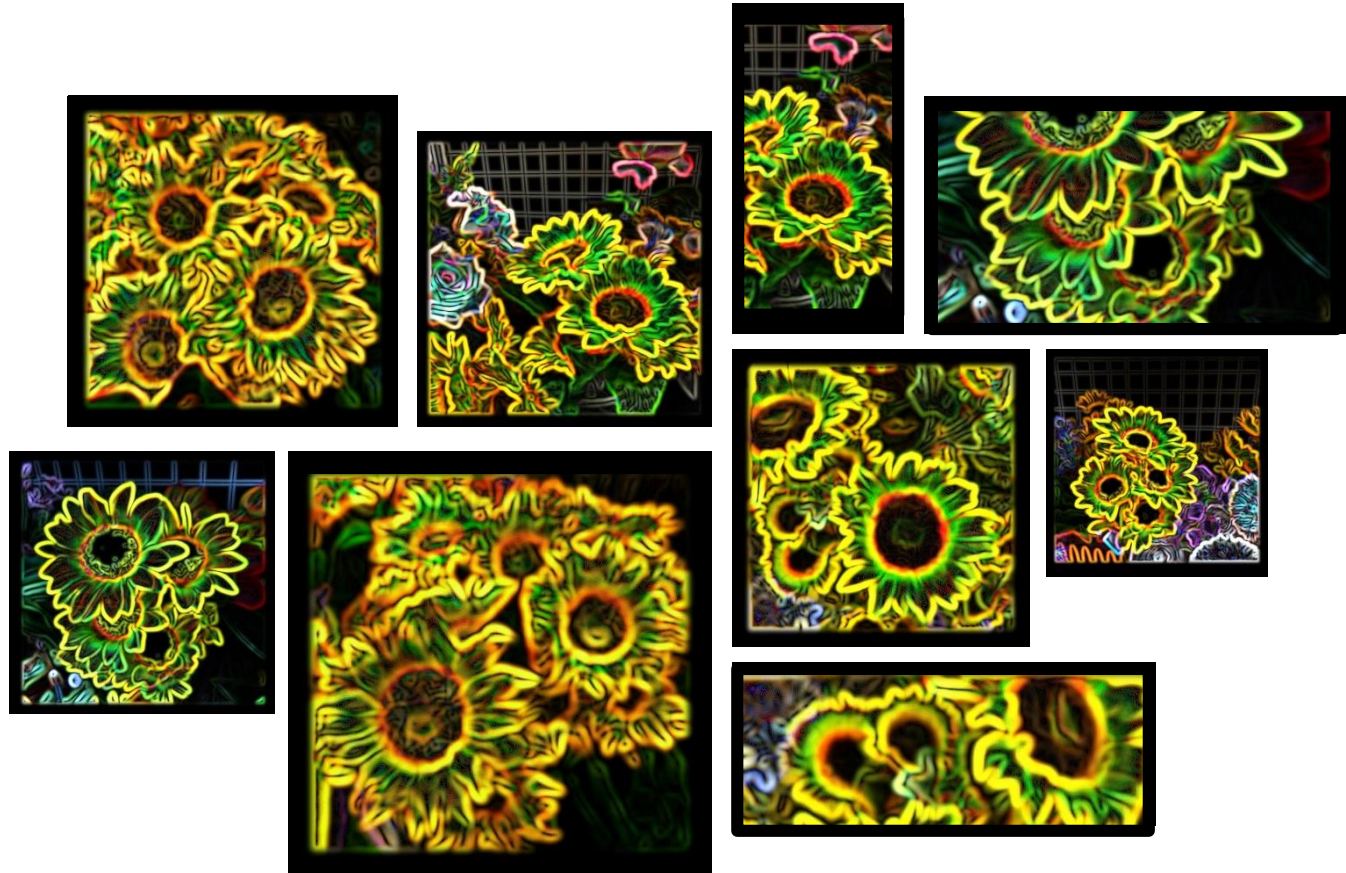
[명사] 종이, 천, 비닐 따위를 재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꽃.

조화 調和

[명사] 서로 잘 어울림

=>조화+조화(인공적인 것들의 조화)

해바라기의 인공적인 형태를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에 배치하여 조화로움 표현



- 37.9×37.9cm
- 45.5×45.5cm
- 53×53cm
- 53×53cm
- 60.6×60.6cm
- 80.3×80.3cm
- 31×60cm
- 43×78cm
- 30×79cm

〈Harmony of artificial〉
200×300cm, Acrylic On Canvas, 2020

김지아 20176592

그때로 유일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잊지 않으려는 마음과 그럼에도 망각하게 되는 것 사이에서 개인이 느낀 애착과 그리움을 담으려 하고 있다.



<22>
10×15cm, 종이에 수채, 2020



<22>
10×14.5cm, 종이에 수채, 2020



<22>
8×7cm, 종이에 수채, 2020

김지현 20170099

날카롭게 관객을 응시하는 모습.



〈응시〉
32×32.2cm, 종이에 아크릴, 2020

김호연 2017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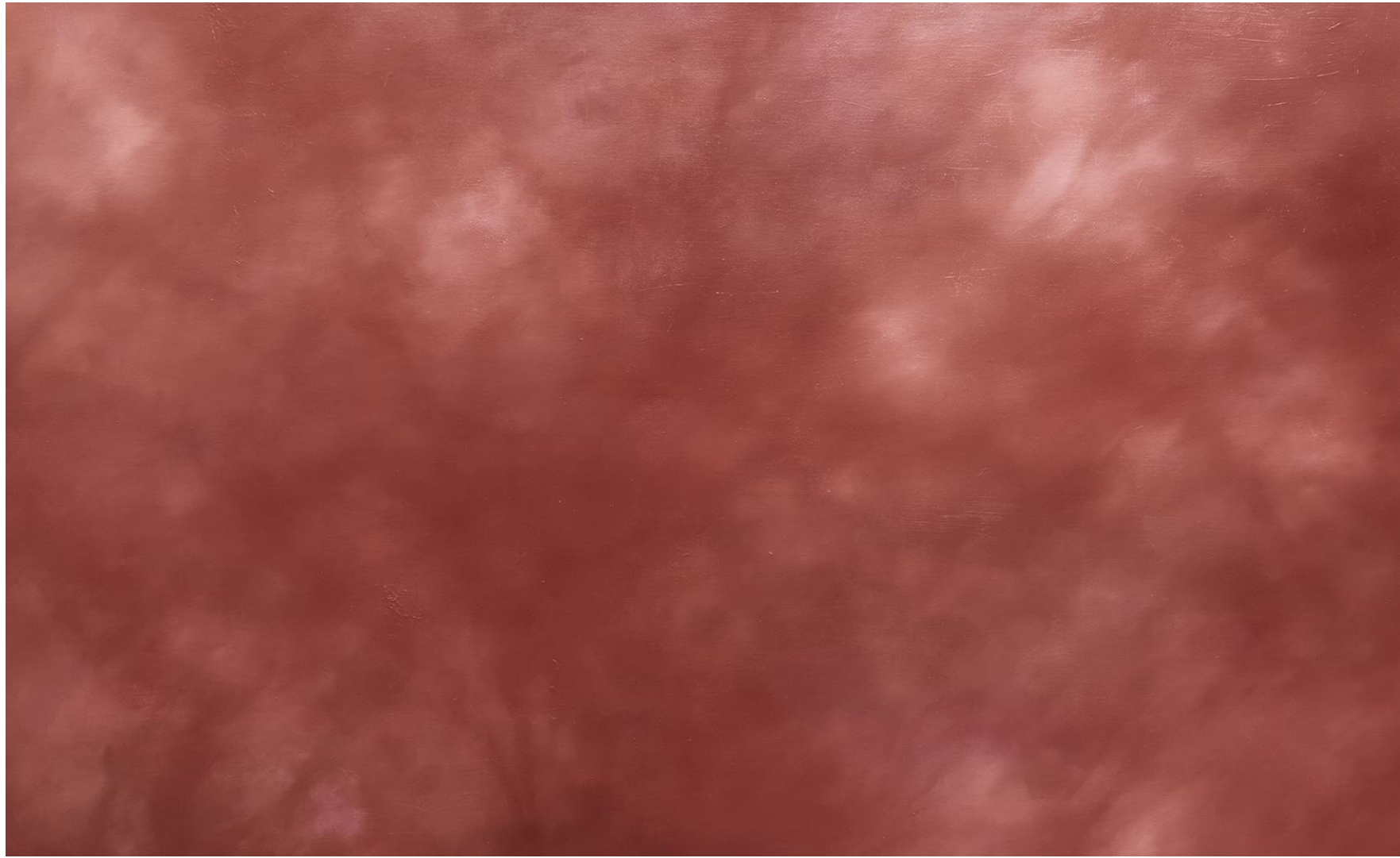
불분명한 감정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대상은 선명하지 않음에 불안을 느끼며,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확신을 바라고 정의를 내리려 한다. 그러나 어떠한 규정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함 이야말로 똑바로 마주 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이다. 사회적 상황이나 누군가가 부여한 모습에 따른 정의가 아닌, 알 수 없는 복합적 상태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모호함은 공간 속 담기거나 담기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유나 규칙과 같이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그저 바라보거나, 담거나, 놓거나, 자신도 모르는 새에 흘러 보내는 것이 전부이다.

공간에서 비릇된 색과 형상은 잔상으로 겹겹이 쌓인다. 움직임 속에서 번지는 각각의 흐름은 확연한 경계를 가지지 않는 듯하다. 정의 내릴 수 없는 복합적 감정을 하나의 곁에 엮어내듯 나타낸다.



〈공간〉 112.1×193.9cm,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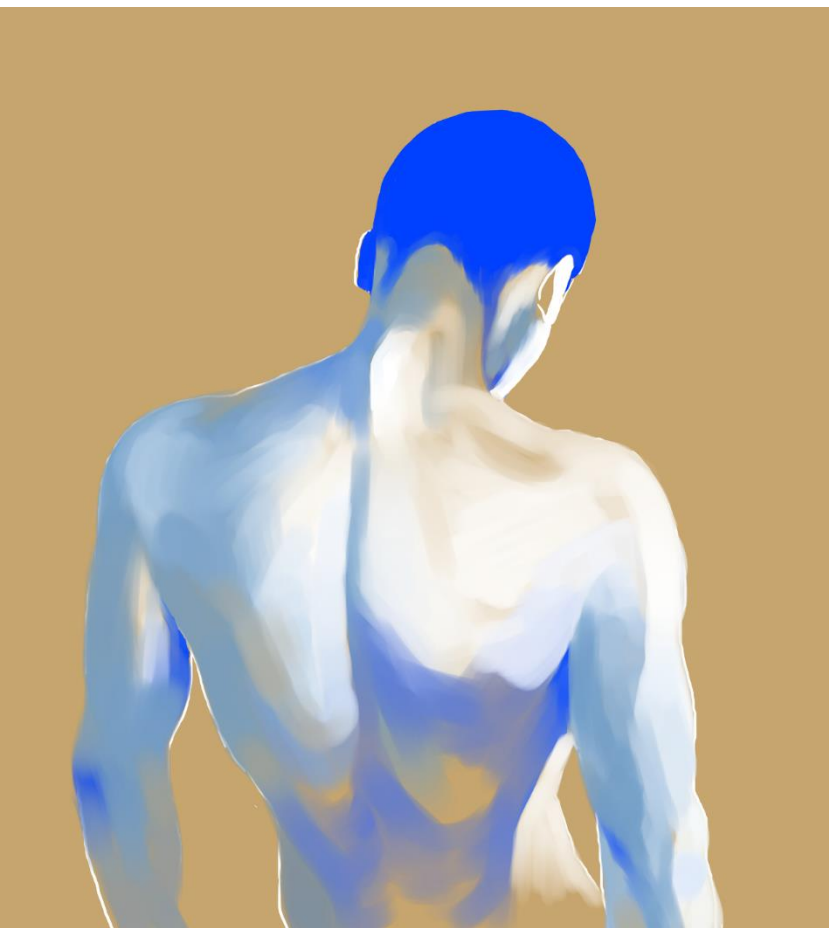
〈공간〉 89.4×145.5cm, Oil On Canvas, 2020

남해주 201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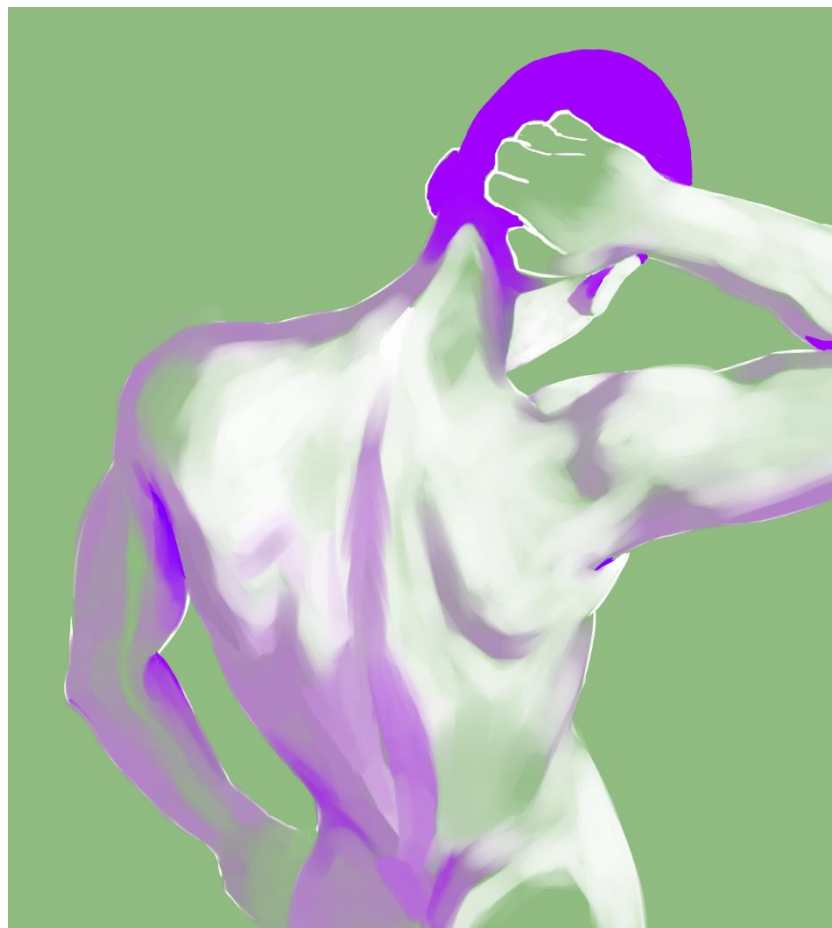
Pin-up boy

질 엘그렌이 그린 핀 업 걸은 여성을 성 상품화 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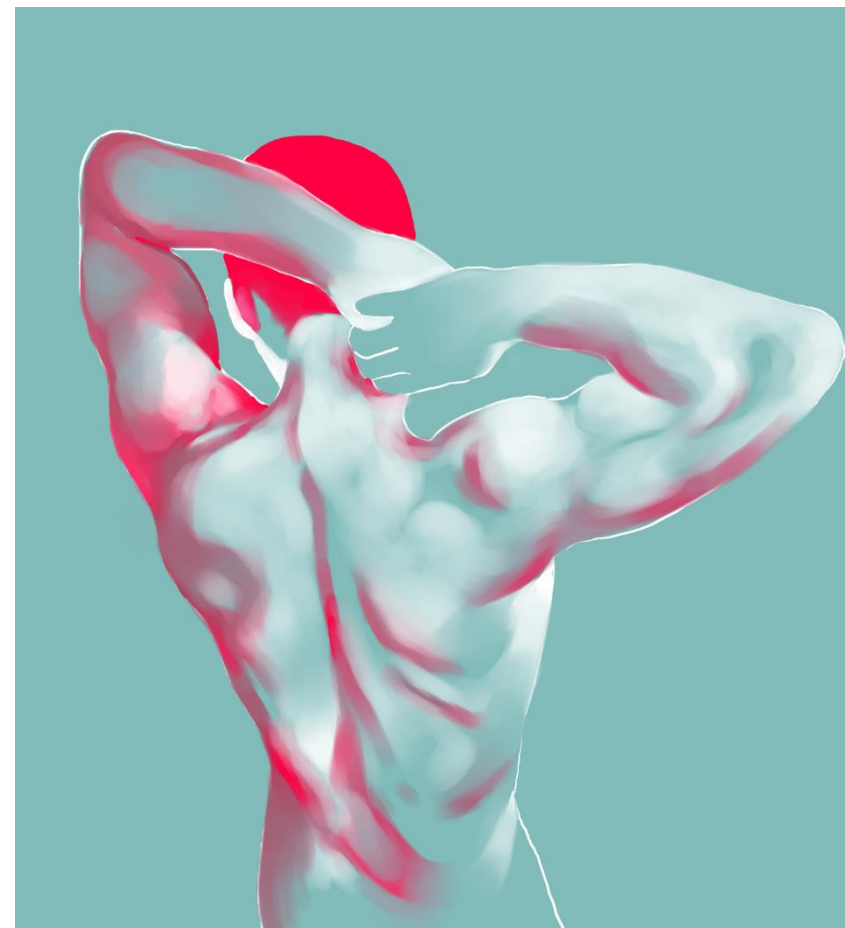
자주 보이는 여성 성 상품들을 성별을 바꾸어 작업해 보았다.



〈Pin-Up Boy〉
72.7×60.6cm, Oil On Canvas, 2020



〈Pin-Up Boy〉
72.7×60.6cm,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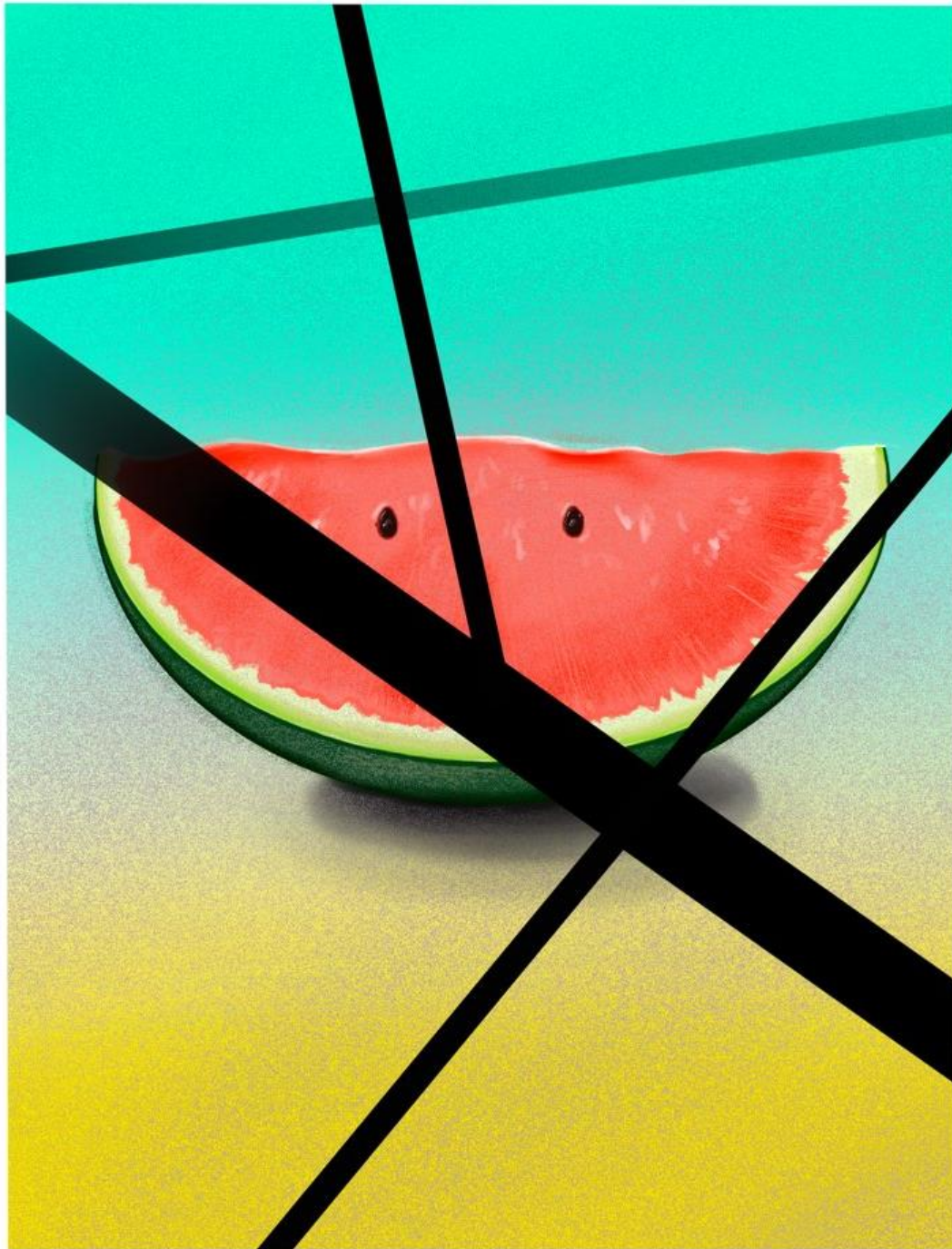


〈Pin-Up Boy〉
72.7×60.6cm, Oil On Canvas, 2020

명양완 20121801

씨 없는 수박의 시대에 살고있다. 물맛인지 단맛인지는 모를 일이다.

껍데기는 언제 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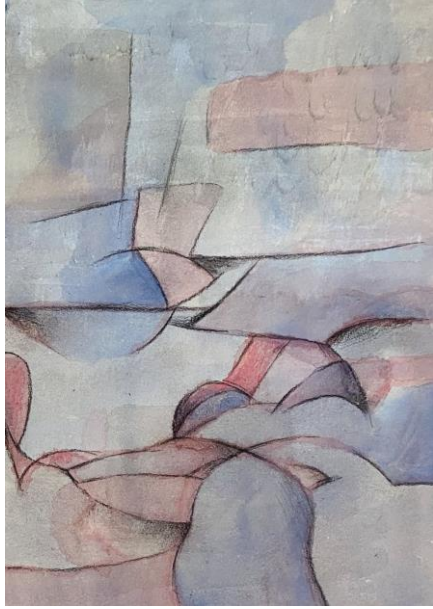
〈씨 없는 수박〉
145.5×112.1cm, Mixed Media, 2020

박미소 20164432

- 기억은 경험, 학습에 대한 인식이므로 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 기억은 특정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하는 성질이 있다.
- 각각의 기억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나열되지 않고, 누적되어 서로 왜곡되기도 하며 재구성 된다.
- 중요한 기억은 선명함에 가깝게 남아있고,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잊어지거나 흐릿한 잔상으로 남는다.
- 누적된 기억의 성질에 대해 시각화 하였을 때, 한 화면에 구상적인 조형적 요소들이 누적되어, 여러 차례 합해 재구성 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의 성질을 보여준다.



〈2020-11〉 26×36cm, Watercolor On Paper, 2020



<2020-2>
26×36cm, Watercolor On Paper, 2020

<2020-3>
26×36cm, Watercolor On Paper, 2020

<2020-4>
26×36cm, Oil On Pap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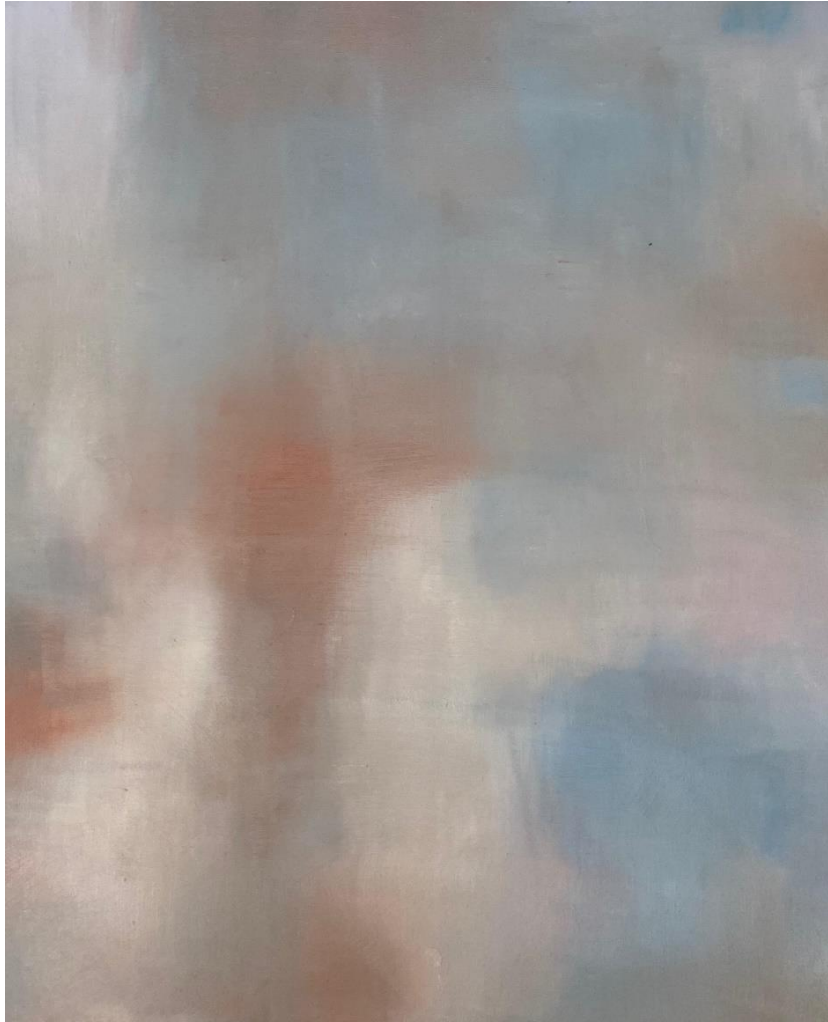
<2020-5>
26×36cm, Watercolor On Paper, 2020

<2020-6>
26×36cm, Oil On Pap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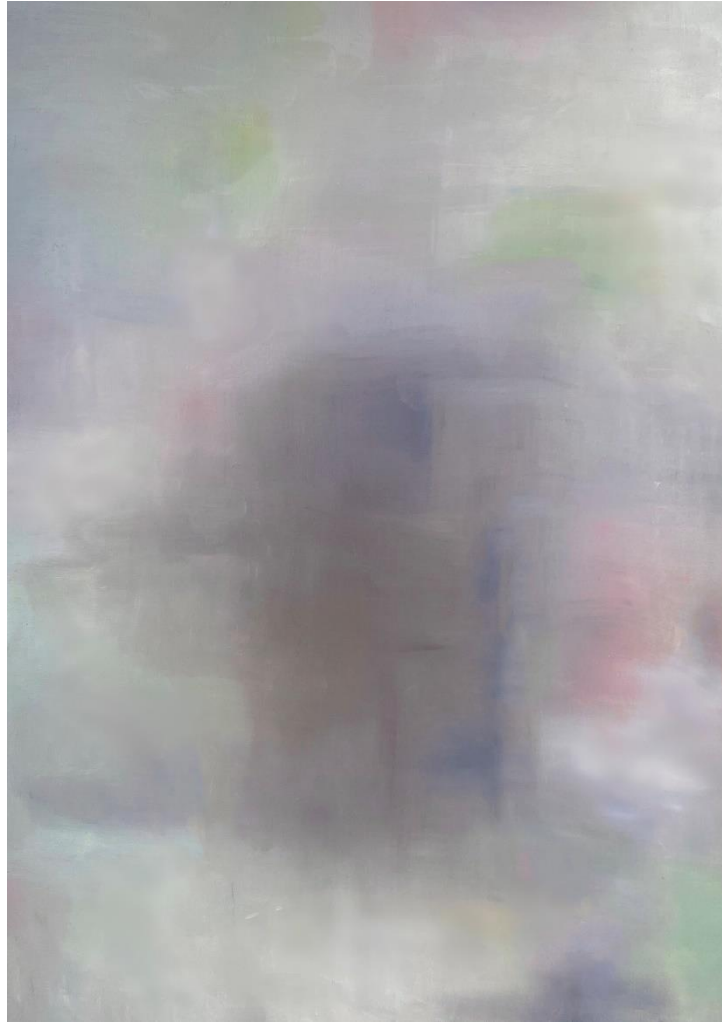
<2020-7>
26×36cm, Oil on pap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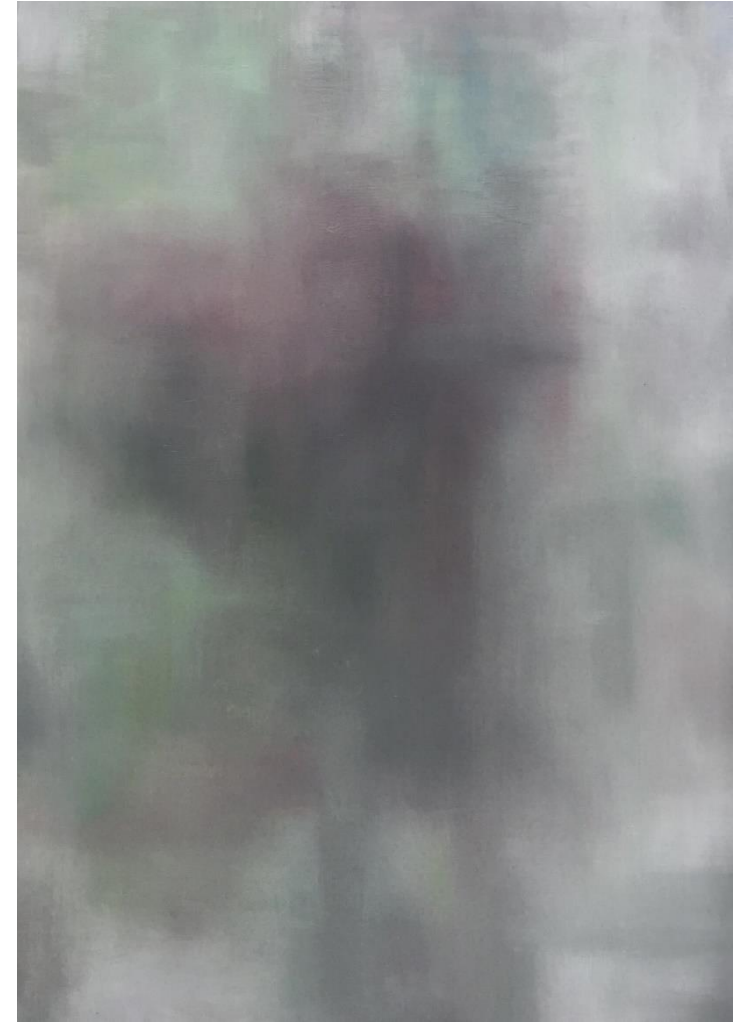
<2020-6>
26×36cm, Acrylic On Paper, 2020



<2020-1>
72×60cm, Oil On Canvas, 2020



<2020-10>
116×91cm, Oil On Canvas, 2020



<2020>
130×97cm, Oil On Canvas, 2020

박찬 20145349

내가 주체로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꽃으로 시각화 하여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만개한 꽃이지만 한발 다가가 그림을 마주해보면
그림과 그림 사이의 균열이 보이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형태의 추상적인 터치들로 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동백 - 사랑의 단상〉

126.4×128.0cm, Acrylic On Canvas, 2020

방혜주 2017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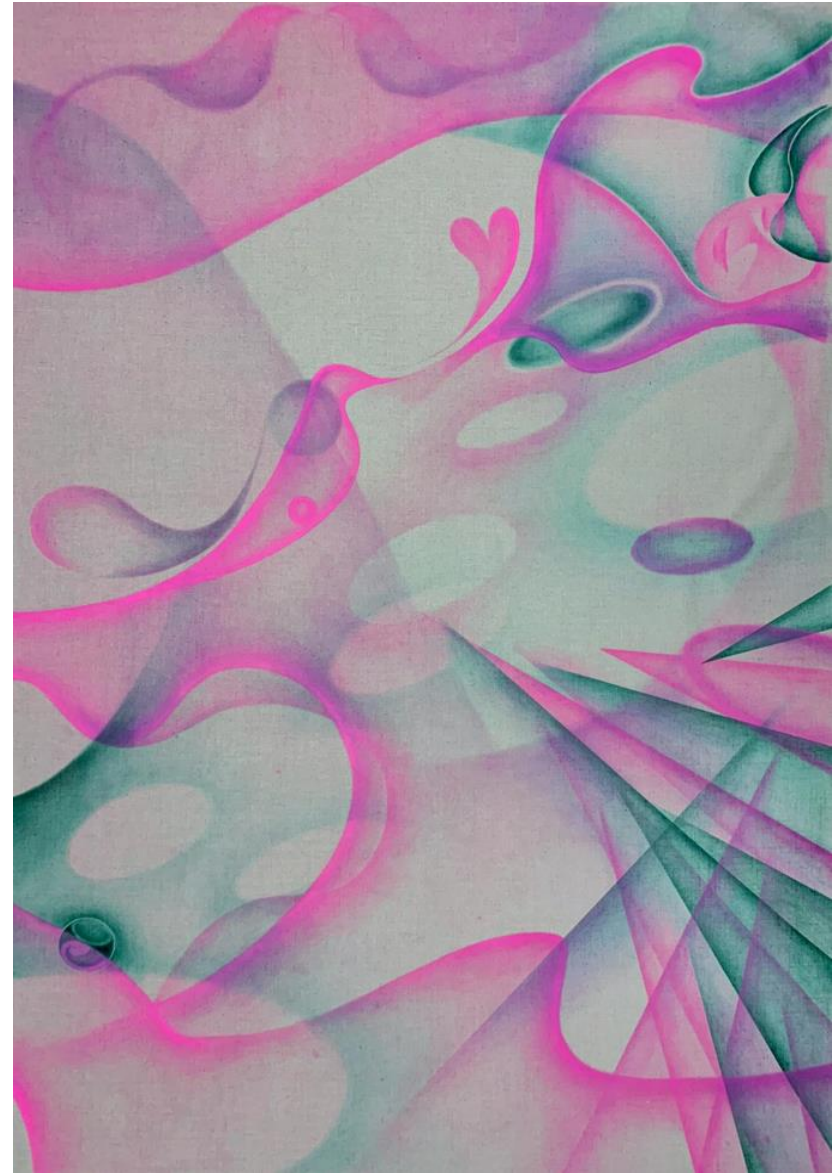
‘나’라는 존재의 유무 혹은 이유를 알기 위해 주로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왔다. 불안함, 공허함, 외로움 같이 결여된 감정을 통해 꼭지점을 찾으려 하였고, 그것은 평면작업이나 유리를 통한 설치작업, 사진 작업 등 다양한 형태로 흘러나왔다.

감정이라는 내면적 요소에 시간이라는 흐름을 더해 어떤 시간 위에 또 다른 시간이 쌓이며 만들어내는 형상에 주목했다.

외로운 감정 위에 따뜻한 감정이 쌓이기도 하고, 현재의 시간에 과거의 시간이 올라타기도 하면서 결국 ‘나’ 스스로를 자각하는 과정을 겪는다



〈사랑이 지저귀다〉
193.9×130.3cm, Oil On Linen, 2020



〈사랑이 지저귀다II〉
193.9×130.3cm, Oil On Linen, 2020

서효정 20176051

1- 작업 계기: 어린시절 부모님의 과잉보호로 인해 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옛날에 비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1인 콘텐츠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혼밥, 혼코노 등의 용어도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자취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이점을 바탕으로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된 1인 가구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작업 방법: 먼저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엄청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4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의 자취나 독립을 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았다. 그것을 작업으로 옮겨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취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나 음식물을 빼곡히 채워놓은 모습 등을 그리게 되었다.

3- 이미지 해석: 처음에는 혼자 살고 싶다는 동경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 크게 맞물린다고 생각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혼주의자들, 독거노인, 학교나 직장으로 인해 자취하는 사람들 등이었고 그들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애매하게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았다. 인스턴트 제품은 겉 표지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느낌, 딱딱 채워져 있어도 건강한 영양과는 거리가 좀 있는 느낌들을 준다. 화려함과 채워져 있는 모습은 내가 1인 가구에 대해 느꼈던 동경이었고 그 속에서 오는 결핍의 감정은 외로움, 혼자라서 완전히 채울 수 없는 영양과 같은 인간관계 등을 표현한 것이다.



<02.08>
53.0×40.9cm, Oil On Canvas, 2018



<03.27>
53.0×40.9cm, Oil On Canvas, 2018



<00:001>
65.0×65.0cm, Oil On Canvas, 2018



<00:002>
65.0×65.0cm, Oil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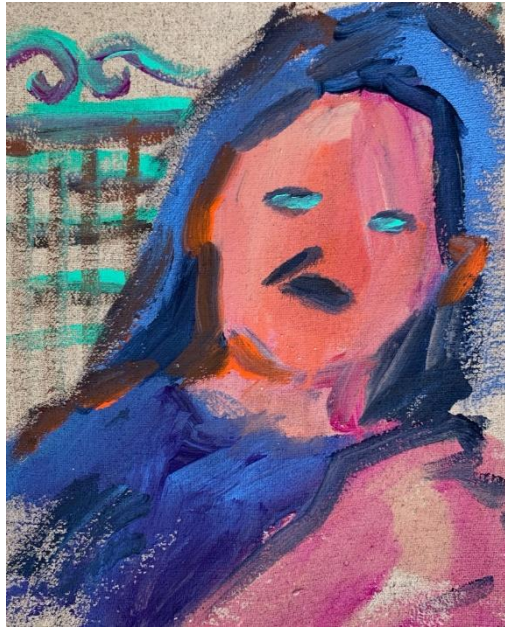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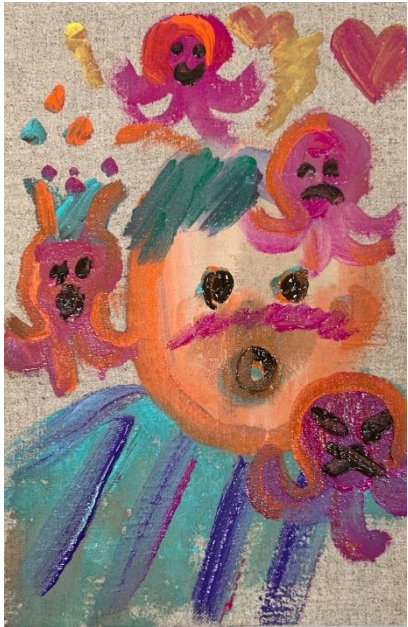


<만족>
65.0×65.0cm, Watercolor On Paper, 2020

신희연 20173842

키워드: 사진, 관심사, 일상의 캐릭터화, 수집 = '밈(m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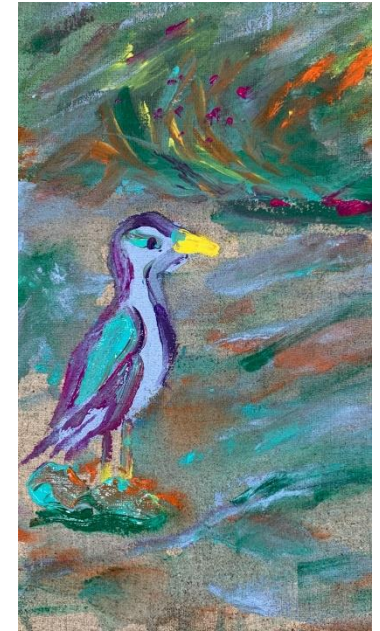
- Meme은 본래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펴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등장한 말로,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는 재미있는 이미지, 캐릭터 성이 있는 이미지, 따라 할 만한 이미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 사진 기술의 간편화로 우리는 의미 없지만 기억 하고싶은 이미지를 수없이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 이미지들은 대부분 직접 촬영한것으로 안에는 각자의 시선이 담겨있고, 촬영한 사람인 본인을 나타낸다.
- 작가는 일상을 이루고있는 '밈'들을 그만의 방식대로 풀어낸다. 일상에서 기억할만한, 다시 말하면 '밈 화'될 만한 이미지를 찾아내 사진으로 기록하고 캔버스에 재구성 하는 방식이다. 작가는 밈 들이 우리의 주변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취합이 곧 작가 본인이며 함께 지내는 동료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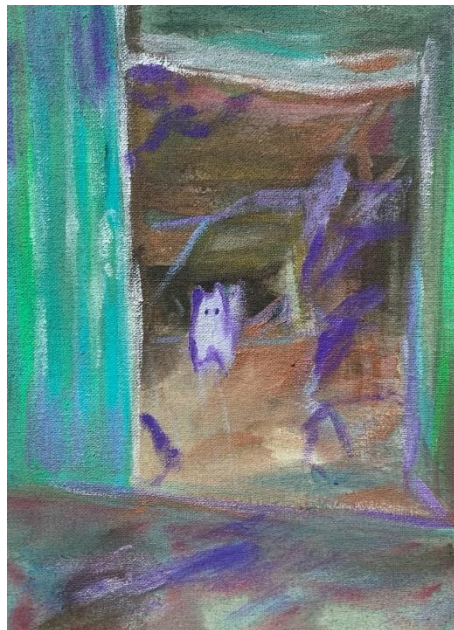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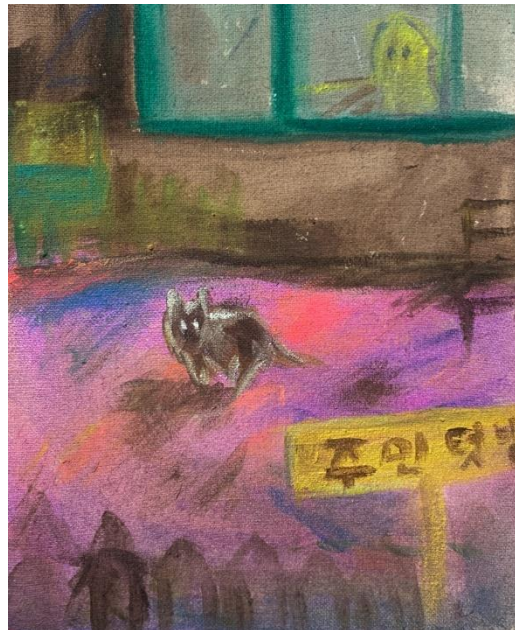
<meme>
33×24cm, Acrylic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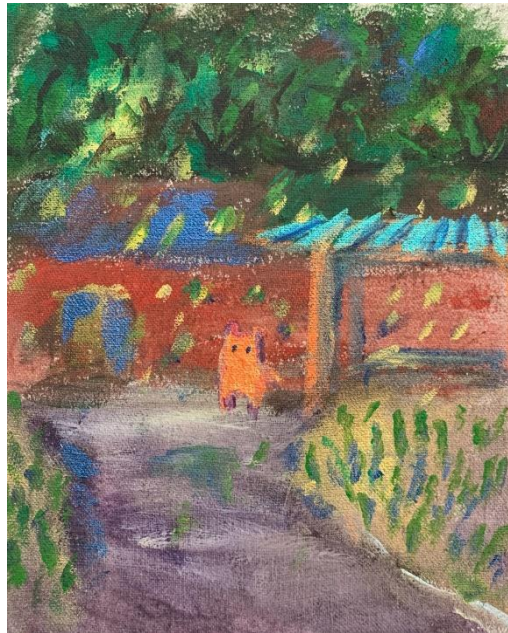
<meme>
33×24cm, Acrylic On Canvas, 2020



〈meme〉
33×24cm, Acrylic On Canvas, 2020



〈meme〉
33×24cm, Acrylic On Canvas, 2020



<meme>
33×24cm, Acrylic On Canvas, 2020

안태원 20140122

격자무늬의 바닥과 뒤의 붉은 색 연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누군가의 계산으로 만들어진 견고해보이는 바닥과 그 뒤에 누군가의 실수 혹은 무언가의 부정교합으로 생겨난 사고, 그로 인한 연기는 계산된 결과물이랑은 거리가 먼 유동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아무튼 붉은 색 연기는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견고한 공간을 만들어낸 집단에게 내려진 벌 같은 것처럼 느껴진다. 바닥 뒤에서 뿔어져 공간을 가득 매운 불 구름은 최근 거대한 화재로 인해 난리가 난 호주의 산불 사진 속 붉은색 구름처럼 위압감을 뿔어져 내는듯 한데 아무튼 그 중간에서 바닥 위에 안정감 있게 서 있지도,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어설픈 인간이 엮드린 채로 그 중간을 배회하는 듯한 느낌을 보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인간의 영혼 같기도 하고, 일촉즉발까지는 아니어도 웬지 계속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쭉 빠져버린 인간 같기도 하다. 인간은 뺨뺨머리에 하찮은 흰 티를 추리닝 반바지에 넣고 있다. 그러한 꾸밈없는 모습에 하찮음 지수가 평균치를 넘어 알 수 없는 애잔함을 마음 깊은 곳에서 유발하는 것이다. 저 녀석은 어쩌다가 저리도 불안감을 야기하는 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 보호구 하나 없이 반팔,반바지만 입은 채로 누워있는 것인가. 그것도 정말 불편해보이는 자세로 공중에 애매하게 떠있는 것인가?



〈가위〉 162.2×130.3cm, Acrylic On Canvas, 2020

이다인 20171998

우리는 다른 듯 껍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 같은 시대와 비슷한 나이를 보내며 우리는 닮은 듯 다른 이야기를 나눈다. 아끼고 아끼는 친구들의 속살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나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응원하게 된다. 그대들의 행복을 바라, 그대들의 고민이 조금 수그러들기를 바라 나는 일기를 쓰듯 당신들과의 이야기를 그린다.

I. 불안함

나와 친구들은 와인을 마시며 각자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닮은 듯 다른 이 대화는 공통점을 가져 서로 공감하는 것인지, 차이점에 공감하는 것인지,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토해내며 불안이 껍 익숙한 것임을 깨닫는다. 와인은 다 마셔가고 초는 다 타 들어가고 우리는 껍 취해 불안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잠에 든다. 그날 우리는 꿈의 찰나에서 모두 용맹한 돈키호테이다.

II. 집

제법 물리적인 고민도 할 줄 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다. 흑자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흑자는 공간을 소유하고있다. 흑자는 옮겨 다니고, 흑자는 정착한다. 우리는 정착과 이동, 적은 비용과 큰 비용 사이에서 모두 소작농민이다. 공간을 원하니 돈을 주고 공간을 산다. 우리는 처음 뼈저리게 느낀다. 존재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III. 책

책에는 답이 있다. 청년들이여 책을 읽어라. 우리는 책에 대해 환상을 가지며 자랐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책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그곳에는 공허한 글자 사이의 공백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어리숙한 우리는 알면서도 책을 놓지 못한다.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결국 그렇게 스스로에게 잠식되어 간다. 천천히 따로 깊게.

못난 듯 못나지 않은 닮은 당신과 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계절을 기억한다.



〈우리들의 시간〉

각 28×18cm, 종이에 먹, 2020

이민영 20173259

나는 대중들의 눈에 맞춰 장식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구했다.

나의 작품을 상품화 시키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동안은 customer가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략하여 다양한 고양이들과 강아지 등등을 그렸다.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유기동물을 그림으로써 길에 생활하는 아이라고 안 예쁜 것이 아닌, 예쁘고 언제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지닌 동물들임을 알리고 싶었다.

상품성을 띄기 위해 아름다운 색채와 동물들의 다소곳한 모습을 그려 넣었고, 그 그림들을 모아서 또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들었다.

목표는 30마리, 동물들과의 교감 중 하나인 아이컨택을 표현한 그림도 넣을 예정이다.



〈All the animals in the world〉
97.0×97.0cm, Digital Painting, 2020



〈Eye contact〉
20×25cm, Digital Painting, 2020



〈Eye contact〉
20×25cm, Digital Painting, 2020

이수민 20170640

- 지금의 우리는 과거 없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도망이었을지라도 분명한 성장이다.
- 이 앞에 서있는 누군가의 지금을 만들어준 어느 날의 감정 그리고 사건들.
- 지금의 당신은 무언가로부터 졸업해 성장을 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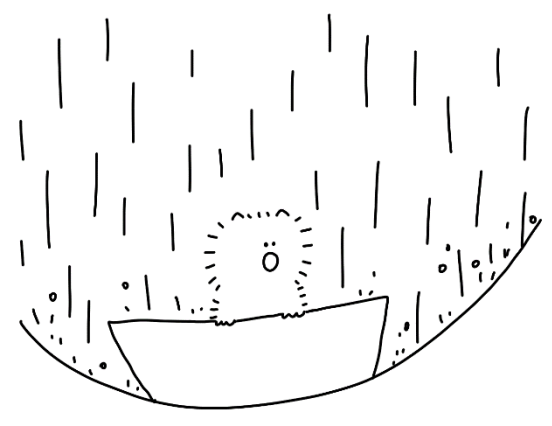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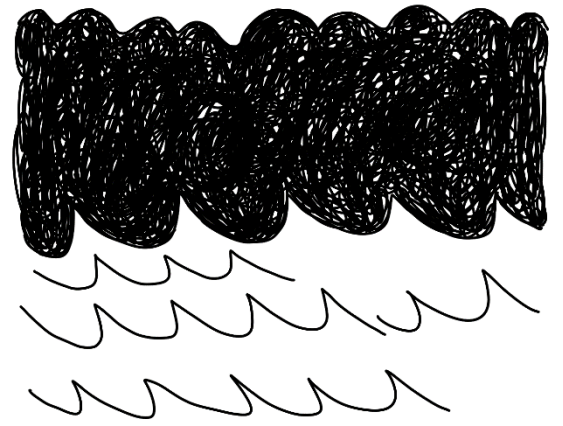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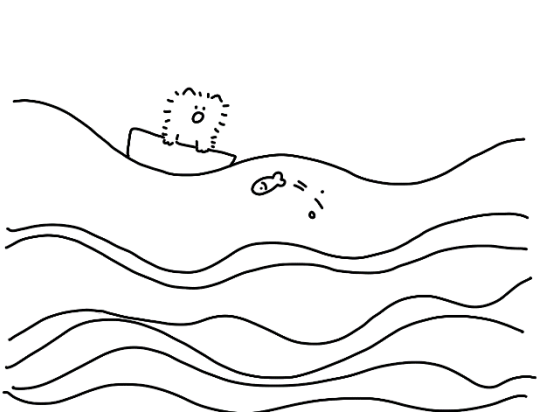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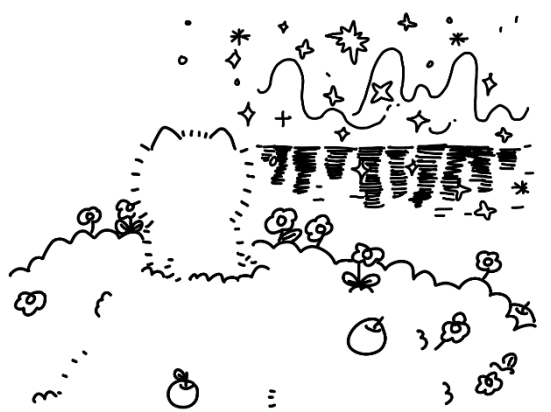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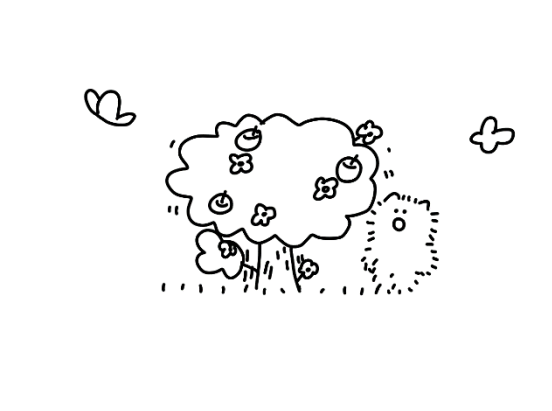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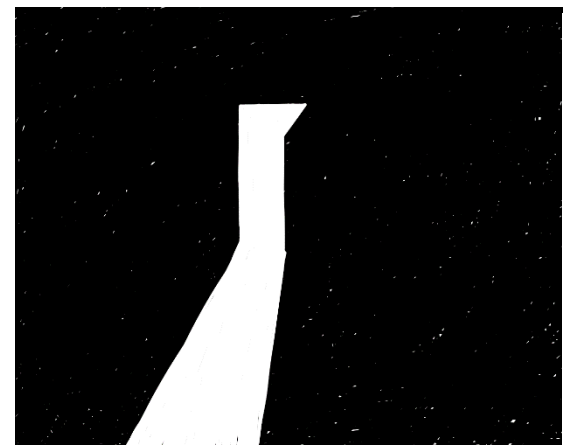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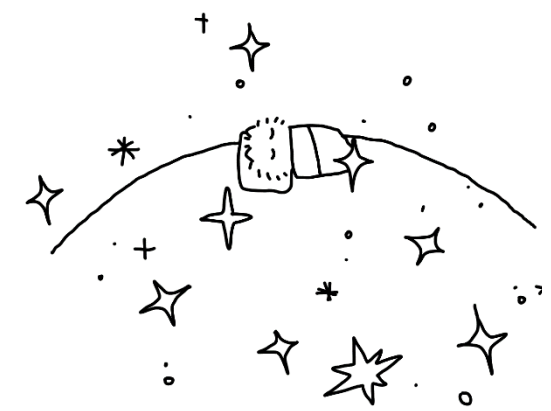


4

1. <The Place Where I Belong> 72×60cm, Oil On Canvas, 2020
2. <The Great Dinner> 162×162cm, Oil On Canvas, 2020
3. <In The Middle Of The Storm> 24×35cm, Oil On Canvas, 2020
4. <In The Living Room> 72×60cm, Oil On Canvas, 2020

이영현 20165802

섬에 있는 것들이 전부이고 다 인줄 알며 살던 고양이가 바다 건너편의 번쩍이는 도시들을 보고 섬을 벗어나 빛나는 도시를 향해 떠나는 이야기.



〈섬〉
영상, 디지털페인팅, 2020

정주원 20173138

은은하게 변화하는 가상의 색면공간에 해파리가 떠 있다. 종이같이 매끄러운 밑 작업을 거친 캔버스에 유화로 부드럽게 표현한다. 해파리는 사실적이지만, 동시에 실제의 그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하늘하늘하게 떠다니는 해파리가 마치 비단 같다. 부드러운 색감은 해파리의 질감과 연결된다. 화면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해파리는 공간의 확장을 암시한다. 나는 화면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을지 상상한다. 길게 뻗어있는 해파리를 정방형의 화면에 나눠 담는다. 나눠진 캔버스는 그 자체로 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이면 하나의 커다란 조형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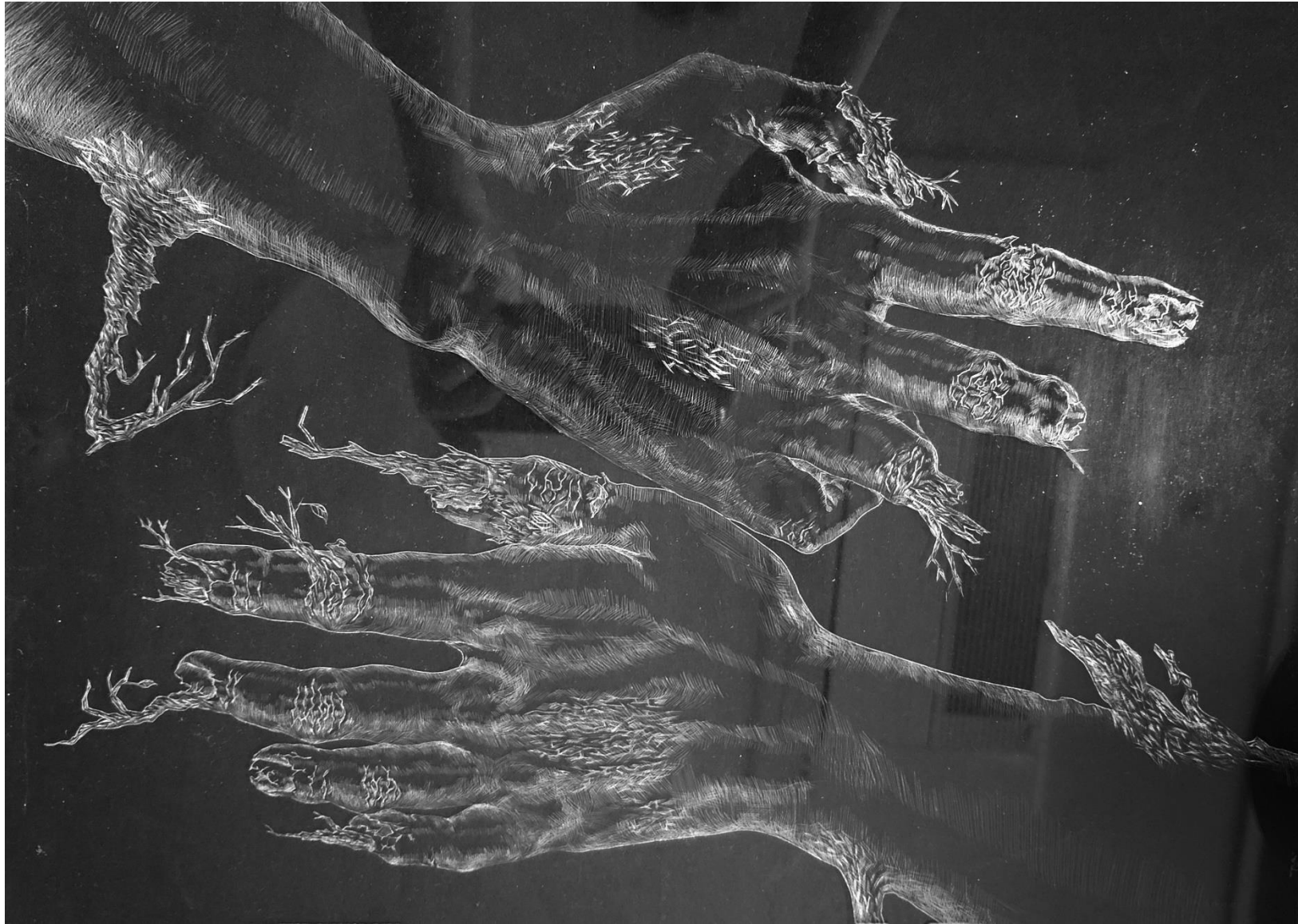
〈Flowing〉
180×225cm, Digital Painting, 2020

정혜윤 20174463

작업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나에게서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바로 스스로 자신의 손을 뜯는 행위이다. 신체에 매일같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곧 나 자신이자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마른 나무의 거친 느낌과 유사하다고 느껴 그 둘을 엮어서 작업을 진행했고, 손에서 시작된 나무는 다른 신체로 확장하게 된다.





〈무제〉 29.7×42cm, 드라이포인트, 2020



〈무제〉 29.7×40cm, 종이에 수채화, 2020

조사별 20174147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숨겨진 개인성의 이면들에 대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개인성을 숨긴 채 이상적인 틀에 맞춰 살아갑니다.

각기 다른 개인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개개인〉

162.2×112.1cm, Oil On Canvas, 2020



<1998> 28cm, 마네킹에 유화, 2020



<1999> 28cm, 마네킹에 유화, 2020



<1996> 28cm, 마네킹에 유화, 2020



<1997> 28cm, 마네킹에 유화, 2020

최예지 20173656

즐거움, 행복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지금 느끼겠어 하면서 나타나는게 아닌 자연스럽게 순간 순간 감정들이다.

유연한 즐거움의 감정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나오는게 아닌, 그 때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바로 떠오르는 색과 조형으로 표현했다.

평면과 설치를 통해 회화를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싶었다.



〈무지개를 잡고〉

97.0×97.0cm,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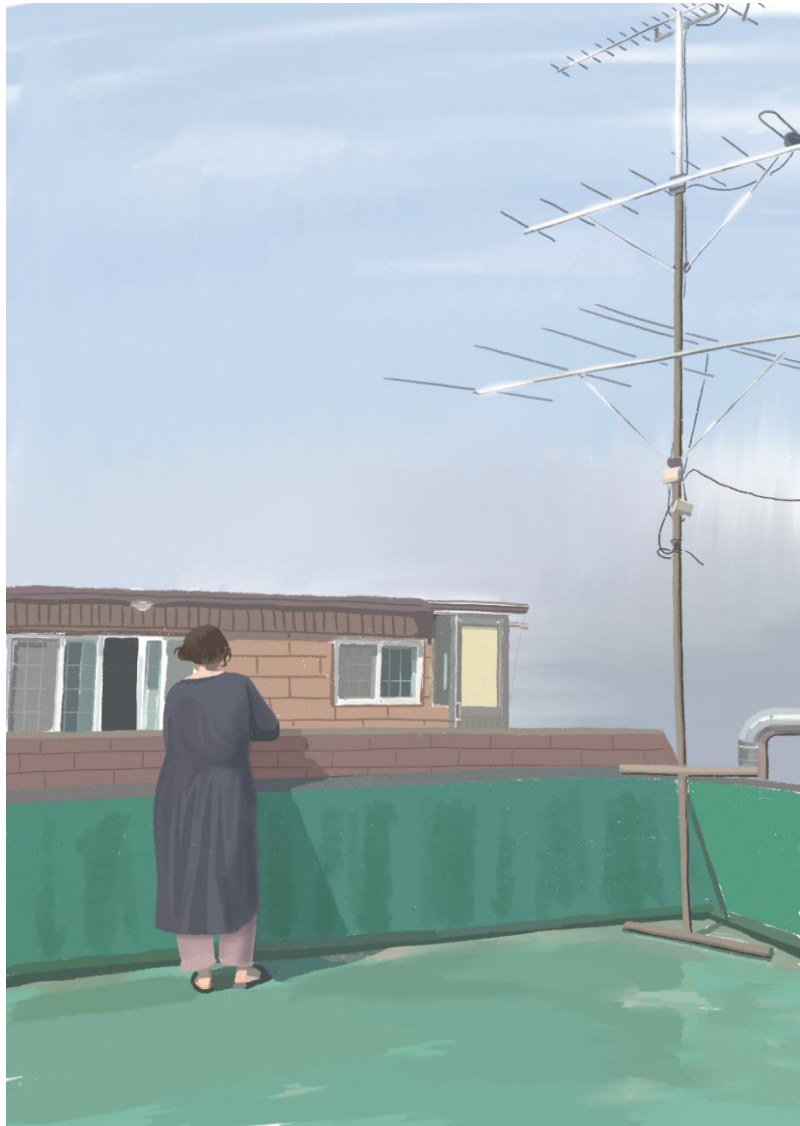


〈행복은 가까이 있다.〉

97.0×97.0cm, Oil On Canvas, 2020

최지민 20176229

‘일상’을 주제로 그린 이 작품들은, 특별하지는 않아도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행복과 평화로운 순간들을 담고있다.



〈일상-옥상에서 1〉
21.0×29.7cm, Digital Art, 2020



〈일상-옥상에서 2〉
21.0×21.0cm, Digital Art, 2020



〈일상-멍 때리기〉
29.7×21.0cm, Digital Art, 2020



〈일상- 빼꼼〉
21.0×29.7cm, Ddigital Art, 2020

최혜원 20163273

막이란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막을 닦아낼 수록 닦아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하나의 막이 더 생겨나게 된다.

어떤 이의 막은 두껍고 어떤 이의 막은 얇을 것이다.

그런 시선들이 쌓여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 다른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진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사이에서 생기는 주관과 편견을 막으로 보았고

그렇게 반복되고 막들이 다시 쌓여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



〈우리가 보려고 한 것〉

70×40×100cm, 트레싱지에 디지털 프린트, 2020

허선흥 20176960

작품은 나에게 씩워지는 타인들의 생각과 시선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나를 멋대로 규정하고 원하는 모습만을 기대해왔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자아들을 무시하는 모습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다. 이로부터 발생하여 축적된 생각과 감정은 점점 강하게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번 작업을 통해 나에게 짐 지워진 것들을 내려놓고자 했다. 작품에서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 다소 거칠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게 인물들은 타인이 내게 기대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은 나의 알터 에고(Alter Ego-또 다른 자아)이자 대변자이며 거울이 된다.



〈Predators〉
97×97cm,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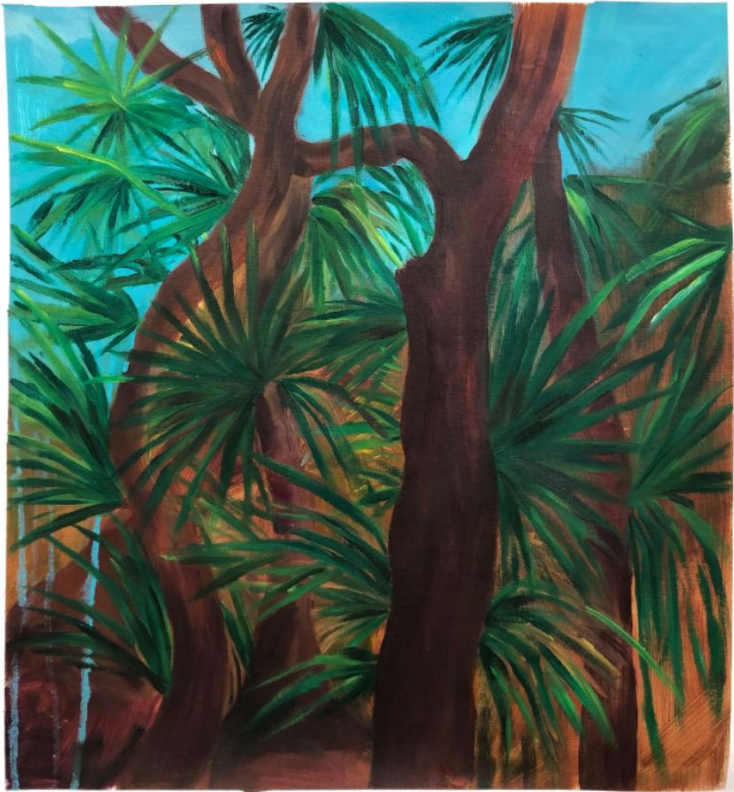


〈내가 했어〉
130.3×130.3cm, Oil On Canvas, 2020

홍유진 20163108

야자수와 열대식물, 해변의 파라솔과 썬 베드,

휴양지의 장소적인 특성이 담긴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생각하며 그린 휴양지 풍경 시리즈. 내가 경험했던 우기 열대지방의 덥고 습한 날씨, 일상과 멀어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포함한 감상이다.



〈비수기의 휴양지〉
가변 크기, 종이에 오일, 2020